

## 24년 7월 목회일정

7일(주일)	임시제직회, 당회
14일(주일)	특강 :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
21일(주일)	성찬가족심방
28일(주일)	초빙설교(박하림강도사/칼빈대학원-교의학)
3-11월	신앙고백반 교육
11일(목)	총회 통일대비위원예비모임(제2영도교회당)
18일(목)	총회 공천위원회(성동교회당)

##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3. 문화주일특강	/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강사 : 최성림 목사) 주제 :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의 역사
4.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김성재 이은수)
5. 이명	/ 이근영 성도(진해드림교회/경남노회) 새신자교육과 당 회면담 후에 성찬에 참여합니다.(성찬 2조)
6. 성찬가족심방	/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1조-박지영가정 2조-김영민가정 3조-김낙형가정
7. 목사동정	/ 1) 임원회 18일(목) 07:30 샘터교회당 2) 총회 공천위원회 18일(목) 14:00 대구 성동교회당
8.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김해개혁장로교회&동래언약교회 연합수련회]

- 일시 : 2024년 8월 23~25일(2박 3일)
- 장소 : 창녕 온누리청소년수련원(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786)
- 회비 : 장년-5만원 S.F.C-3만원 초등부-1만원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도)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금요독서회	20:00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7월	8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구성본	김명순
안 내	김학희	최진언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개혁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 성 언 화 교 회 ( 최 지 혁 )
장학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7.14.(제28-28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 개 회

-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1:1-2(교송)  
인도자 :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회 중 :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 배 찬 송 ↑ 시편106편(6-7)
-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 죄 의 공 적 고 백 ↑ 다함께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 사 찬 송 ↑ 찬송가251장(1-2)

##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 경 봉 독 ↓ 합 3:13-19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8편
- 설 교 ↓ 설교자

## 환난 날에 안식을

-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 세 례 식 ↑ 필요시 시행
-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377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 봉사사역

-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61장(1-4)

## 폐 회

-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div>문화주일특강</div> <div>사회 김영민 장로 강사 최성림 목사</div>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346장	
	기 도 ..... 고충석 장로	
	성 경 봉 독 ..... 롬11:1-7, 13-16	
강 의 ..... 강 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의 역사		
봉 헌 ..... 봉헌위원		
찬 송 ..... 찬499장		
주 기 도 문 ..... 다같이		
<div>· 서론</div> <div>· 1.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의 역사</div> <div>1) 이스라엘의 입장</div> <div>2) 팔레스틴의 입장</div> <div>· 2. 현재의 이스라엘(유대인)에 대한 이해</div> <div>1) 구약시대의 이스라엘</div> <div>2) 신약시대의 이스라엘</div> <div>· 3. 세상의 유대인에 대한 인식변화의 역사</div> <div>1) 유대패망 후 ~ 근대</div> <div>2) 근대 이후</div> <div>· 4. 시온주의에 대하여</div> <div>1) 시온주의의 기원</div> <div>2) 시온주의의 현재</div> <div>· 5. 한국교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보는 시각</div> <div>1) 1960년대 이전</div> <div>2) 1960년대 이후</div> <div>· 결론</div>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송]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김해(목, 18:30)		
인도 : 양주동 강도사		
* 울산(수, 19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주간성경읽기		
주일	시90-92	눅8:22-39
월	시93-95	눅8:40-56
화	시96-98	눅9:1-17
수	시99-101	눅9:18-36
목	시102-104	눅9:37-62
금	시105-106	눅10:1-24
토	시107-109	눅10:25-42
이야기성경		
구	51. 사무엘	
	52. 사무엘 선지자	
신	33. 누가 최고의 제자일까?	
주일설교를 기억하며(환난 날에 안식을)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를		
2. 환난 중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언제나 안식할 수 있기를		
3.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목사)		
1. 복음전파가 자유로운 우리나라에 찾아온 불교와 이슬람권 이주민 외국인근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2. 인구감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요즘 더 깊이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김해개혁장로교회 / 동래연약교회)		
1. 연합예배를 통해 신앙의 일치성을 경험하고, 신앙이 일치되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2. 신앙의 일치성을 통해 공교회를 세우는 삼위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3. 두 교회 연합수련회(8.23-25)가 순전히 준비되어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당회를 위하여(최성림 양주동 / 고충석 김영민)		
1. 당회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한 예배와 심방을 통해 성도들의 모든 삶을 잘 돌아보게		
2. 목사가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성도들이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이끌도록		
3. 장로가 성도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여 매주일 예배와 성찬을 잘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이끌도록		

모든 성도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6)
전에 쓴 글
<p>성도가 왜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교회의 직분자로, 가정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 세상의 제사장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왕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다니고, 그냥 성경읽는 것으로, 예수믿는다는 고백을 가진 것만으로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분별할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의 도리를 묻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p>
<p><b>[신학자로 자라지 않는 성도에 대한 경고]</b></p> <p>우리는 이쯤에 히브리서기자의 경고를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고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2-14) 이 말씀은 히브리서 수신자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했지만 도의 초보를 아는 것 외에 더 이상 자라가지 않음으로 [다시 복음의 초보를 가르침 받아야 할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신앙생활만 오래했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p> <p>“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히 6:1-6)</p> <p>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고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데까지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성도들 중에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며, 게을리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함으로서 신앙에 있어서 자람이 없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는 자들에게 심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p>
<p><b>[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개혁해가야 합니다.]</b></p> <p>이 개혁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주의교회 성도는 항상 자라가야 합니다. 그 자람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입니다(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러니 성도가 신학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끝</p>

이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물론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 2. 환난 날에 안식을

심판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선지자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갔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온다는 재앙의 소식을 접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고 합니다(16절).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단어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안식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선지자는 단지 환난 날을 기다린다기보다 환난 날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쟁이 끝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선지자에게는 무화과, 포도, 감람, 밭의 소출, 양, 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쟁의 폐해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확히 언약의 저주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18절).” 비록 언약의 저주로 인하여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죄와 악은 소멸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옳습니다. 십자가라는 언약의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이 있는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생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공동체 전체가 보편적으로 겪는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동일한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세례”가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부활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경험입니다. 환난 중에 안식을 하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선지자는 절정을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19절).” 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시 18:33, 삼하 22:34).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으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를 높은 곳에 세워서 열방을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다윗언약의 성취입니다. 선지자는 다윗언약의 성취를 노래하며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7월14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99장
성경봉독	.....	합 3:13-19
설 교	환난 날에 안식을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는 신정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이 그나마 덜 악한 유다를 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합 1:13).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합 2:4).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1. 악인을 밟으시는 하나님

영화나 소설에서 전쟁을 하다보면 영웅은 대체로 늦게 등장합니다. 영웅이 나타난 이후로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어 적들로부터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도 한 전쟁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영웅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웅 야웨.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백성과 다윗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십니다(13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의 집을 발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발가벗기십니다.

그러나 적군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약백성을 흠어버리려고 광풍을 몰고 옵니다(14절). 이들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가난한 자까지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이토록 사악한 자들을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영웅께서는 그 머리를 찢어버리십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15절).” 영웅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십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세계나 열방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합 2:14, 단 7:3, 계 13:1). 이들은 언약백성을 성난 파도가 되어 언약백성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오신 주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짓밟으십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폭력을 잠재우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언약백성이 원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약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무능하게 보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악이 이기고 의가 꺾박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